

한·일 토끼 설화의 비교 연구*

—트릭스터의 유형을 중심으로—

송영숙**

(e-mail : venussys@hanmail.net)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3. 일본 토끼 설화의 유형과 특징 |
| 2. 한국 토끼 설화의 유형과 특징 | 4. 맺음말 |

키워드 : 토끼 설화(Rabbit Tales), 트릭스터(Trickster), 비교(Comparison), 자기중심형(Self-centered type), 탈중심형(Decentralized type)

1. 머리말

한일의 동물 설화에 등장하는 토끼는 일반적인 동물들의 모습과는 달리 캐릭터의 성격이 매우 다가치적(多價值的)으로 나타난다. 토끼의 특성은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현명한 판단의 주체, 상황 판단에서 드러나는 의외의 어리숙함, 억울하게 당한 이를 대신하여 상대 인물에게 잔인하게 복수하기, 금기를 위반하는 행위, 상대를 속이거나 속는 행위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전형적인 트릭스터의 모습이다.¹⁾ 이처럼 한일의 설화에서 토끼의 이미지는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규정지을 수 없을 만큼 극과 극의 대립을 보이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B5A07041391).

** 전남대 일어일문학과 강사, 일본문화학 전공.

1) 트릭스터의 범주에 속하는 캐릭터는 애매하고 비정상적인 심리의 소유자, 기만이나 술책을 부리는 자, 모습을 바꾸는 자, 상황을 역전시키는 자, 신의 사자이자 모방자, 신성하면서도 외설적인 존재 등으로 규정한다. W.J.Hynes, *Mythical Trickster Figure-Contours, Contexts, and Criticism*, Tuscaloosa & London: The University of Alabama press, 1993, pp.33-45.

는 특징이 매우 뚜렷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 점에 착안하여 토끼의 다가치적인 트릭스터의 속성에 주목했으며, 한일의 토끼 설화에서 트릭스터의 유형을 도출하여 한일 트릭스터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비교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설화에 나타난 토끼의 트릭스터적인 행위는 다중적 상징의 표상이지만, 필자의 연구에 의하면 이를 구분하는 뚜렷한 기준이 되는 것은 이기적인 목적과 이타적인 목적에 의한 것이다. 달리 말하면 한일의 설화에 공통적으로 묘사된 토끼 트릭스터의 특징은 이기적인 자기중심형(自己中心型)과 이타적인 탈중심형(脫中心型)으로 구분할 수 있다.²⁾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일 토끼 설화의 트릭스터를 구분하는데 기준이 되는 유형인 자기중심형과 탈중심형으로 나누어 트릭스터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비교분석하기로 한다.

본 논문의 비교 텍스트는 한국은 『한국구비문학대계(韓國口碑文學大系)』(총 82권, 이하 대계라 칭함)이며, 일본은 『일본의 민담(日本の民話)』(총 26권, 이하 민담)과 『일본석화대성(日本昔話大成)』(전 12권, 이하 대성) 등에 수록된 이야기이다. 설화를 연구하는 방법은 한일의 토끼 설화에서 모티브에 따라 트릭스터의 유형을 추출하고 사례를 제시한 후에 각각의 유형에 대한 특징과 의미를 도출하여 한일 트릭스터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비교분석한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한일 토끼 설화의 비교연구는 한일 간의 전과 경로에 치중되어 있으며, 트릭스터의 속성을 비교한 연구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일 트릭스터를 비교한 선행연구 대신에 현재까지 진행된 한일 토끼 설화의 연구 현황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에서 진행된 선행연구이다.

김택규는 불전에 수록된 「별주부전」의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가 구비전승된 토끼 설화와 그 맥락이 동일한 점에 주목하여 토끼 설화가 한국에서 일본으로 전래되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³⁾ 이어서 노성환은 여수 오동도의 토끼 설화가 일본에 전래되어 이나바의 흰토끼(稲羽の白兎) 설화가 생성된 것이라는 논지를 전개하였다.⁴⁾ 이에 대한 근거로 고대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생각

2) 유형에 대한 명명은 빠아제가 언급한 다음의 아동발달론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자기중심성이란 모든 대상을 타인의 관점에서 볼 수 없는 특성을 말하며 보통 7-8세 이전에 나타난다. 이후 아동이 성장하면서 점차 사회성을 익히는 가운데 자기중심성을 벗어나는 상태를 탈중심화라 한다. 장·빠아제, 베르벨 이넬데, 김재은 역(1981), 『아동심리학』, 교육과학사.

3) 김택규(1986) 「동해문화권 탐방기 -일본열도 동해연안의 신화와 제의의 현장-」 『신라 문화제 학술 발표논문집』 7(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p.314.

4) ①魯成煥(2003) 「稲羽の白兎」 説話と韓国・梧桐島の伝説, 古事記年報(46), pp.53-57. ②노성환(2010) 『여수 오동도 토끼 설화의 세계성』, 민속원, pp.77-122.

할 때 설화의 플롯이 완전히 일치되는 점, 특히 트릭스터인 토끼가 마지막에 수중 동물에게 가죽이 벗겨지는 점 등을 언급했다. 송영숙은 일본 토끼 설화의 전체적인 유형과 양상을 도출하고, 그 중에서 트릭스터의 유형을 제시하여 설화에 나타나는 토끼 트릭스터의 특징을 분석하였다.⁵⁾

한국 설화에 묘사된 토끼 트릭스터의 캐릭터에 초점을 맞춘 연구도 상당한 진척을 보였다. 먼저 나수호는 한국의 토끼 설화와 북미원주민의 토끼 설화를 비교분석하였고, 한국 트릭스터 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제시하였다.⁶⁾ 김기호는 토끼 설화의 역설적 기능을 분석하여 토끼 설화가 주는 의의는 사회화와 반사회화의 중용 혹은 중도로서 사회적 균형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데 있다고 보았다.⁷⁾ 이상의 연구는 토끼의 트릭스터적인 속성을 세계적으로 비교하여 연구의 지평을 확장했으며, 토끼 트릭스터 설화가 민중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일본의 선행연구는 흰토끼 설화의 원류를 규명한 것과 옥토끼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먼저 후쿠시마 아키호(福島秋穂)⁸⁾는 흰토끼 이야기의 원류가 일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일본인들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많이 진출한 18세기 무렵에 그 지역의 여성들과 혼인하면서 이나바의 흰토끼 설화를 들려주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전파를 주장한 그루미사와 아쓰오(糊胡厚生)⁹⁾는 한국에도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 그는 『고지키』에서 오쿠니누시노가미(大国主)가 흰토끼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무의적(巫医的)인 성격의 신이라는 특성을 들어 일본에서 한국으로 전래되었다고 해석했다.

이와는 다르게 흰토끼 설화가 외부로부터 유입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구라노겐지(倉野憲司), 나카니시 스스무(中西進), 오쿠마 기이치로(大久間喜一郎), 노쓰 도루(野津龍) 등의 연구도 주목된다.¹⁰⁾ 이들 연구의 공통점은 흰토끼 설화

5) 송영숙(2015) 「일본 설화 속의 토끼담 연구」 『日語日文學研究』 第95輯 2卷, 韓國日語日文學會, pp.381-399.

6) 나수호(2003) 「트릭스터 연구의 현황과 과제」,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한국구비문학회, pp.1-9.

7) 김기호(2008) 『<토끼 설화>의 역설(逆說)적 경험』, 民族文化論叢(第38輯)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8) 福島秋穂(1988) 「稲羽の素兎譚について」 『記紀神話伝説の研究』, 六興出版, pp.382-383.

9) 糊胡厚生(2000) 「すすきの穂と兎」, 『アジア遊学』 19, 勉誠出版, pp.163-164.

10) ①倉野憲司(1976) 『古事記全註釋』 3, 三省堂, p.200. ②中西進(1985) 『天つ神の世界 -古事記をよむ-', 角川書店, pp.229-230. ③大久間喜一郎(1995) 『古事記の比較説話学』, 雄山閣, p.92. ④野津龍(1985) 「因幡の白兎伝説の誕生」 『鳥取大学教育学部研究報告 人文 社会科学』 36-2, 鳥取大学教育学部研

가 인도네시아에서 일본으로 전파되었다는 주장이다. 이외에 흰토끼 설화가 외부에서 일본으로 전래되었다고 주장하는 다수의 연구도 발견된다.¹¹⁾

이와는 다르게 흰토끼 설화를 고대의 민족이동과 결부시킨 매우 흥미로운 연구도 진행되었다. 나카지마 도시이치로(中島利一郎)는 고대 문헌집에 등장하는 “오사기”와 “사비”가 한국어에서 유래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나바의 흰토끼> 설화는 조선 현도주변의 표류민이 오키섬에 도착하여 이나바 지역으로 이동한 것을 신화화한 것이라고 논하였다.¹²⁾ 아무런 무기도 없는 표류민을 그 당시에 무기를 소유한 철기이용자가 학대한 것을 신화로 미화시킨 것이며, 그 이면에는 민족 이동의 중대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였다. 이어서 불교설화에 대한 연구로서 석가의 본생담과 관련된 이시가미 켄노(石上善応)와 고바야시 노부히코(小林信彦)의 옥토끼(玉兎)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¹³⁾

이상의 선행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까지 진행된 한일 토끼 설화의 비교연구는 <이나바의 흰토끼> 설화의 전파경로를 유추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토끼의 가장 큰 특성이 트릭스터 속성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일의 설화에서 토끼 트릭스터의 의미를 규명하여 비교분석하는 작업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한일의 연구자들에게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으며, 본 논문은 이 점에 착목하여 한일의 토끼 설화에서 토끼 트릭스터의 다층적 특성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분석을 진행하기로 한다.

본 논문에서 시도하는 한일 토끼 트릭스터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비교연구는 한일 설화의 전파 경로를 파악하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한일의 토끼 설화를 새로운 각도로 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한일 토끼 설화의 전반적인 유형에 대한 비교연구와 나아가 한일의 설화에 나타나는 다양한 트릭스터의 특성을 비교분석하는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p.99.

- 11) ①松村一男(1991) 「大国主伝説と出雲神話」, 『海と列島文化』 2- 日本海と出雲世界, 小学館, p.204. ②大林太良(1995) 『北の神神, 南の英雄』, 小学館, p.82. ③小島桜礼(2008), 「文献 解題と本文. 現代語訳」 ④門田真知子 編, 『比較神話から読み解く因幡の白兎神話の迷』 今井出判, pp.213-214.
- 12) 中島利一郎, 「我が上代文化の東洋言語学的背景」, 『東洋言語学の建設』, pp.77-78, 노성환(2010), 앞의 책 p.97에서 재인용.
- 13) ①石上善応(1996) 「仏典の説話伝承について : とくに月兎説を中心に」, 仏教文学の多様性 II : インド仏教の文学性, 大正大学研究論叢 4, pp.77-94. ②小林信彦(2003) 「ブツダが兎であった時の話: 中国語ヴァージョンに見られる仏教説話の複雑な展開」, 桃山学院大学人間科学 25, pp.77-100.

2. 한국 토끼 설화의 유형과 특징

『대계』에 등장하는 토끼 설화는 총34화이며, 이 중에서 단순히 토끼 이름의 유래를 말하는 1화는 논의에서 제외한다.¹⁴⁾ 33화에 등장하는 토끼의 성격을 플롯의 내용에 따라 분석하면 모든 이야기가 트릭스터의 유형에 속하며, 트릭스터의 행동은 자신의 목적을 위한 것과 타인의 억울함을 대신 해결하는 것으로 대별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기적인 유형인 자기중심형과 이타적인 유형인 탈중심형으로 구분하여 논지를 전개하기로 한다.

2.1. 자기중심형(이기적인 트릭스터)

이 유형에 해당되는 토끼 설화는 총21화이며 서사구조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이를 플롯의 내용에 따라 정리하면 토끼가 자신의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 제삼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서사구조 9화,¹⁵⁾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자’적 성격의 서사구조 3화,¹⁶⁾ ‘식욕본능’에 관한 서사구조 6화,¹⁷⁾ 그리고 ‘본능적 성욕’과 관련된 서사구조 3화¹⁸⁾가 확인된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내용은 제삼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서사구조로, 토끼가 동물이나 사람을 교활한 방법으로 기만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제5-6권 <피 많은 토끼>의 내용에는 동물을 속여서 위기를 모면하는 토끼의 꾀가 상세히 묘사되어 있다.

[사례 1]

병이 나서 문복을 해 본게 퇴끼간을 먹으면 산다 그랬거든. 여러 대신들이 많어도 별주부 자라가 구해오기로 했어. 자라가 토끼를 만나서 “토선생! 토선생!”

14) 『대계』 8-6<토끼 이름의 유래> pp.851-867.

15) ①<피 많은 토끼>(8-5권, pp.93-95.), ②<어리석은 녹두영감과 피 많은 토끼>(7-4권, pp.225-226.), ③<토끼에게 당한 녹두침지>(7-10권, pp.870-872.), ④<토끼 잡아 봉변 당한 노부부>(7-13권, pp.407-409.), ⑤<호랑이 끌려준 소금장수와 토끼>(2-1권, p.312.), ⑥<토끼와 호랑이>(8-2권, pp.158-161.), ⑦<토끼바위와 거북바위>(6-7권, p.604.), ⑧<피조배기 토끼>(7-4권, pp.167-169.), ⑨<피많은 토끼>(5-6권, pp.299-302.)

16) ①<호랑이, 원숭이, 토끼의 점괘>(1-7권, pp.570-576.), ②<토끼의 점술서 얻은 소금장수>(8-3권, pp.480-481.), ③<토끼의 점>(1-4권, p.493.)

17) ①<두꺼비에 속은 호랑이와 토끼>(5-4권, pp.612-616.), ②<토끼 늑대 거북이의 지혜 겨루기>(4-5권, pp.326-327.), ③<두꺼비, 여우 그리고 토끼의 내기>(6-4권, pp.200-202.), ④<두꺼비, 여우 그리고 토끼의 내기>(6-4권, pp.490-492.), ⑤<토끼와 가재>(6-9권, pp.501-502.), ⑥<토끼와 가재>(6-9권, pp.602-603.)

18) ①<호랑이 육보인 토끼>(1-4권, pp.725-726.), ②<바람기 많은 부인의 음부에 그려 놓은 토끼 화상>(2-8권, pp.829-831.), ③<불기쪽에 그려 놓은 토끼>(6-12권, pp.153-154.)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수궁에 사는 별주부울시다. 토선생이 우리 수궁으로 가시면은 어 도청대장 혈 격인데 우리 수궁을 갑시다.”…(중략)…아 수궁을 들어간게 베실은커녕 그만 두고 퇴끼 간을 내라고 잡으라고 근다말여. “별주부가 애초에 처음에 들어올 즉에 말을 했으면 내가 토끼간을 가지고 올친데 토끼간을 안 가지고 왔소.” “너 이놈 퇴끼간 안가지고 댕기고, 어서 뒤 간을 냐다 들였다 허냐?” 획 돌아서 똥구녁을 보임서, “여 똥구녁을 보시오. 한 구녁은 오줌싸는 구녁, 한 구녁은 똥싸는 구녁, 한 구녁은 간 뺏다 들였다 하는 구녁이요.” 저, 이 본게 똥구녁이 셋이여. “가서 간을 가져 오라!”…(중략)…“야 자숙아 어찌 간을 뺏다 들였다 현다냐? 내가 안죽을라고 둘러댔다 자숙아!”…(중략)…막 사방을 도망가다가 퇴끼 잡을라고 망녕그물치듯 거가 딱 걸렸네…(중략)…“야 쇠파리야. 나 더 털끝 안 뵈도록 쇠나 좀 실어도라.” 쇠파리란 놈이 와갓고는 끝도 안뵈게 그양 쇠를 실어놔지…(중략)…나뭇꾼이 “야 여그 퇴끼 한 마리 걸렸다. 따고 본게 쇠파리가 쇠를 끈끈히 실어 놔거든. “이게 언제 걸려서 썩었나 어찌냐.” 요렇게 냄새 똥구녁 대고 냄새를 맡은게 이 놈이 방구 나온걸 참았다가 그때서 말을 적에 소리 만나게 가만 꺾게 아 구린내가 나거든. “에크! 이 썩었다.” 획잡어 평근게(던지니까) 궁글다 이놈이 회딱 뛰어서, “죽은 퇴끼 나간다. 썩은 퇴끼 나간다. 살인 퇴끼 나간다.”…(중략)…독수리란 놈이 말여 아 이놈을 탁 채갓고 인자 바오 위에 앉아 이놈을 뜯어 먹을라고…(중략)…아 그냥 독수리란 놈이 뺨을 시 자리 맞고 그냥 포기해버렸어. 그케 약어. 퇴끼가.19)

[사례 1]은 토끼가 별주부의 감언이설에 속고 사람이 쳐놓은 그물에 걸리거나 독수리에 채어서 목숨을 잃을 뻔 했지만, 트릭스터의 기질을 발휘하여 절체절명의 순간을 극복하는 내용이다. 위기를 모면하는 이야기는 세단계로 전개되며 첫 번째는 <별주부전>을 원형(原型)으로 한다. 여기서 토끼는 거북이에게 속아 용궁까지 따라가서 목숨을 잃을 뻔했으나, 육지에 간을 두고 왔다고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하여 무사히 위기를 넘긴다.

두 번째는 토끼가 다시 도망을 가다가 뒷에 걸리지만 이번에도 토끼는 즉시 쇠파리에게 쇠를 실어달라고 부탁한다. 그리고 쇠가 잔뜩 실린 자신을 걸어 올리는 사냥꾼에게 목음의 방귀를 발사하여 고약한 냄새를 풍긴다. 토끼의 이러한 연기는 사냥꾼의 반응을 미리 예상하고 계획한 것으로, 사냥꾼은 토끼가 썩었다고 생각해서 던져버렸고 토끼는 또다시 목숨을 부지하게 된다. 하지만 이 찰나에 독수리가 토끼를 잡아채는 바람에 또다시 죽을 위기에 놓인다. 이번에도 토끼는 순발력을 발휘하여 독수리에게 자신을 놓아주면 동굴에 놓아둔 고기 석동을 갖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다. 이 말을 끝이끝대로 믿은 독수리가 토끼를 놓아

19) 『대계』 (5-6권), pp.299-302.

준 후에 고기를 가지러 가지만, 오히려 토끼에게 뺨까지 얻어맞는 굴욕을 당하고 포기하게 된다.

[사례 1]의 이야기는 <별주부전>에서 위기에 처한 토끼가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하여 목숨을 구한 것처럼, 위기의 순간마다 토끼가 순발력을 발휘하여 상대를 속여서 목숨을 보존하는 공통적인 서사구조이다. 곤경에 처한 토끼가 상대동물을 속이는 방법만이 다를 뿐이며 동일한 플롯으로 전개되는 사실이 발견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사례 1]에 등장하는 토끼의 트릭스터적인 행위는 <별주부전>의 모티브가 원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점점 더 교묘해지는 토끼의 트릭스터적인 기질은 제7-13권, <토끼 잡아 봉변당한 노부부>의 이야기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사례 2]

이전에 저어 산골에 영감 할마이가 살았는데...(중략)...어린 딸을 구들목에다가 낚히 놓고 영감 할마니가 나무하로 갔어. 토끼를 한 마리 잡았는기라. 집에 와서 인자 솔에다가 안치놓는다, 장작을 피아놓고 또 나무하로 갔는 기라. 그랜디, 이눔우 토끼가 꺾자 어찌 많든지, 이눔우 고걸 알고 저는 인자 구들목에 드가고, 아일랑(아이랑은) 인자 솔에다 영어 낚거든. 그레 인자 아알 푹 삶았는기라...(중략)...기레가주구 인자 집에 와서 보이까 이, 솔에 짐(김)이 나쌍거덩. 푹 삶겼는 기라. 할마니가 하는 말이, “요건 푹 우리 얼라아 손 걸다.” 카거덩. 영감이 있다가 “토끼 손은 여사 그렇다. 또 발을 뜯어 먹으민성, “요건 푹 우리 얼라아 발 걸다.”카이 “토끼 발은 여사 그렇다...(중략)...다 뜯어 먹고 나이, 이눔우 토끼가 구들목에 누워서 ‘앵앵’ 카가덩. “오냐. 내 토끼 고기 다 먹고 너겨 쫓 주께.” 다 뜯어 먹고 그릇 치올라 카이 요눔우 토끼가 폴짝 뛰어나가거덩. 아, 영감 할마이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기라. 아 요눔우 고나 토끼가 나무 빗가리 훌쩍 뛰올라 카디, “요게 불지르마 내 죽지.” 이카거덩. 거어 불싸질러부렀다...(중략)...또 나락에 인자 노적 빗가리 올라가디이...(중략)...고고 활타부이는 기라. 다 타부리고 지봉케 훌쩍 뛰어올라가아가주고, 지봉케 또 불 확 질렀부리네...(중략)...이 집을 영 망쳤는 기라. 그러구로 고마 집구석을 망쳤는 기라...(하략)...20)

[사례 2]에 등장하는 토끼는 할아버지에게 붙잡혀서 죽을 위기에 처했으나 자기대신 가마솔에 할아버지 부부의 아이를 넣어 살아지게 한다. 그것도 모자라 할아버지 부부에게 태연스레 그 아이를 먹게 한 후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할아버지 부부가 경악을 하며 토끼를 잡으려고 하자 집안을 이쪽저쪽으로 누비면서 약을 올린다. 정신 줄을 놓아버린 할아버지 부부는 토끼가 가는 곳마

20) 『대계』 (7-3권), pp.407-409.

다 불을 지르며 그 뒤를 쫓다가 마침내 온 집안을 다 태워버리고 만다는 매우 비상식적이며 잔인한 이야기이다.

이야기 속에서 토끼는 아이를 자기 대신 죽게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할아버지 부부에게 그 아이를 끓인 탕까지 먹게 하는 악행을 서슴지 않는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화가 난 부부에게 집안 곳곳을 다니며 조롱을 퍼부어서 집안의 세간을 모두 파괴하게 만들고 결국엔 온 집안까지 다 태우게 한 후 자신은 유유히 사라진다. 이 내용은 자기중심형 트릭스터의 다양한 모습 중에서 상대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파괴본능의 특징이 매우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야기이다.

여기에 묘사된 토끼의 모든 행동은 교활할 뿐만 아니라 매우 악의적이며 비사회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 나아가 상대를 곤혹에 빠뜨리는 토끼의 행동은 일차적으로 멈추지 않고 단계적으로 이어지는 집요함까지 보인다. 철저하게 상대를 망가뜨리는 토끼의 행동 그 어디에도 이미 도덕적인 자취를 찾을 수가 없다. 마치 악의적인 존재의 화신처럼 행동할 뿐 자기반성의 모습이나 상대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 토끼는 오히려 상대를 단계적으로 파괴하며 즐기는 유희본능과 살해본능에 몰두하는 캐릭터로 나타난다.

[사례 1]과 [사례 2]에 묘사된 토끼의 행동은 전형적인 자기중심형의 표상이다. 하지만 [사례 2]의 트릭스터는 [사례 1]과 비교할 때 본질 자체가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다. [사례 1]에서 토끼는 단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상대를 기만하였으며, 상대를 속이는 다양한 방법도 상대를 그럴싸하게 납득시킬만한 설득력이 있었다.

하지만 [사례 2]에 등장하는 토끼는 단순히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을 해하려했던 상대에게 잔인한 복수극을 펼친다. 상대에게 자신대신 그 집의 아이를 삶아서 먹이는가하면, 그 집을 다 태우는 악행까지 주저하지 않는다. 두 사례는 동일한 자기중심형의 이야기이지만, 그 원형은 [사례 1]의 토끼처럼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것에서 출발했다고 여겨진다. 이후 트릭스터인 토끼에 대한 민중의 흥미가 가미되면서 [사례 2]와 같이 토끼가 상대에게 잔인하게 복수하는 내용이 과생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외부로부터 유입된 설화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또 다른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겠다.

논의를 정리하면 한국의 토끼 트릭스터 자기중심형의 특징은 단순히 자신의 안위를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였으나, 나중에는 타인과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사회성의 결여와 부재’가 뚜렷한 쪽으로 변화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2.2. 탈중심형(이타적인 트릭스터)

이 유형은 토끼가 현명한 판단을 하여 억울하게 죽을 위기에 내몰린 사람을 구해주는 공통적인 서사구조이다. 『대계』에는 총12화가 확인되며,²¹⁾ 2-9권, <명판 토끼의 지혜>에 나타난 토끼의 꾀는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사례 3]

호랭이가 함정에 빠졌다 이 말이야. 호랑이가, “아, 당신은 들여다 보지 말고서 나를 살려주면은 은혜를 갚을 테니 날 살려다오.” 가만히 생각하니, 호랭이를 잡아 파는 것보다도 저 놈이 은혜를 갚는다하니까 산골의 짐승을 얼마나 잡아 팔 것 같으니… (중략)… 힘껏 잡아당겨 끄내 냈다 이거야. 끄내 놓으니까 호랭이가, “내가 빠진지 일 주일이 됐는데 배가 고파서 배길 수가 없어. 내가 널 잡아먹어야 겠다.” “너는 내가 니 생명을 살려냈는데 나를 잡아먹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럼, 이걸 재판을 해야 된다.” 마침 퇴끼(토끼) 하나 깡충깡충 뛰어 온다 말이야. “토생원, 토생원.” “예.” “이 재판을 좀 해주세요. 호랑이가 함정에 빠졌는데 이걸 내가 끄내놔더니 일주일 있어 배가 고파 날 잡아 먹는다 하니 그 좋은 일하고 벼락 맞는 일 아니요. 이거 토생원이 재판 좀 해 주세요.” “그럼 내가 재판관이다.” “어서 빠졌느냐? 함정이 어디 있느냐?” 갓단 말이야. 호랑이를 따라. “재판관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도로 저가 빠져 봐라 이말이야. 그래 도로 빠졌다. “이 길로 가서 장작 마른 나무 한 짐 지고 오너라.” “이 굴을 덮어라.” “불을 질러라.” 불을 지르니까, 연기가 나니까 호랑이가 나올 수 있어? 호랭이가 그만 홀랑타 죽으니까 호랑이를 쫓아지고 가 죽을 배껴 호랑이를 팔고 호랑이 고기 먹고 이래고 고만 원수를 갚지 않았어.²²⁾

[사례 3]에서 토끼는 동굴에 빠진 호랑이를 구해주고 오히려 그 호랑이에게 잡혀 먹힐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는 정의로운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토끼는 피해자인 사람과 가해자인 호랑이의 입장을 제대로 판단하고 그 둘에게 심판관의 말에 따를 것을 강조한다. 심판관인 토끼의 말을 의심 없이 믿은 호랑이는 토끼의 요구에 따라 함정으로 다시 들어갔으며, 토끼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굴을 덮고 불을 지르게 하여 호랑이를 태운다.

21) ①<호랑이 잡아먹은 토끼의 꾀>(3-2권, pp.401-405.), ②<토끼와 호랑이>(5-4권, pp.492-494.), ③<지혜로 호랑이 잡은 토끼>(5-5권, pp.249-252.), ④<호랑이와 토끼>(8-2권, p.354.), ⑤<둔덕골 호랑이와 물밭골 토끼>(8-5권, pp.715-716.), ⑥<토끼가 호랑이 잡은 이야기>(8-1권, pp.187-189.), ⑦<토끼에 속은 호랑이>(2-5권, pp.100-102.), ⑧<호랑이 잡은 토끼의 꾀>(4-4권, pp.940-942.), ⑨<거북이와 토끼가 호랑이를 물리치다>(5-3권, pp.307-309), ⑩<토끼에 속아 함정에 빠진 호랑이>(6-2권, pp.706-708.), ⑪<호랑이를 쫓고 염소를 살린 토끼>(7-16권, pp.275-276.), ⑫<명판 토끼의 지혜>(2-9권, pp.35-37.)

22) 『대계』 (2-9권), pp.35-37.

결국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했던 호랑이와 인간의 충돌은 토끼의 현명한 판단에 의해 온정을 베풀었던 인간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된다. 이처럼 악의 표상인 호랑이를 동굴에 다시 가두고 선을 대신한 인간의 목숨을 살려서 공공의 정의를 구현시키는 토끼는 ‘현명한 판사’의 표상이 된다. 계속해서 명판 토끼의 사례를 6-2권, <토끼에게 속아 함정에 빠진 호랑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사례 4]

호랭이가 함정에 빠졌든겁니다...(중략)...장사가 호랭이를 살렸오 그러. 살려놓게 호랭이란 것이...(중략)...“내가 함정에 빠져서 매칠을 굶었어. 내가 너를 먹어버려야 내가 살겠다.”...(중략)...“그러면 내가 죽더라도 니가 내 공로를 나 땀(때문에) 산놈이 나를 잡아 먹을란다 고 하니 그럼 우리 가서, 재판이나 좀 하자.” “압디 바우한테로 가자...(중략)...”하 인제 가서 “내가 건져놔더니 댁대 나를 잡아먹을란다 고 한다. 그렇게 내가 저놈한테 잡아 맥혀야 쓰겼오?” 그렇게 시방 바우가 가마이 생각해 붕께 초군들이 오면 바우 가서 신 신고 돌아댁이고, 낫궁텅이로 토닥토닥 허고 괴롭게만 허거든. “에이 그놈의 자식 잡아 먹어분저라.”...(중략)...아이 졌오 그러. 난중에 퇴깡이(토끼) 한테로 가제...(중략)...“아 이리저리 해서 함정에 빠져서 살려놔데이. 나를 잡아 먹으라 한다니 내가 잡혀 먹어야 쓰겼오, 살아야 쓰겼오?” 가마이 생각하드이, “아 가자고 함정은 어디가 있디야?”...(중략)...호랭이 앞세우고 퇴깡이가 앞서고, 사람이 뒤에 따랐습니다. 함정에 가서는 함정 갓을 뺑뺑 돌아다니더니, 호랭이 보고 “여그서 엇뜨게 빠졌습디여. 빠지면 건져 함정문을 우리가 열어서 건져줄테잉께 어디 빠진 행위나 한 번 해보잇시오.” “요렇게 빠졌드이라.”고 폭빠져분지요. “함정문을 닫어분저라.” 퇴깡이 한테 호랭이가 둘러서 함정에 도로 못나오고 도로 빠졌더라우.²³⁾

[사례 4]에서 토끼는 [사례 3]과 같이 사람이 함정에 빠진 호랑이를 구해주고 영락없이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뻔했던 상황을 극적으로 역전시킨다. 하지만 이 같은 일이 순조롭게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호랑이를 구해준 사람이 자신을 잡아먹으려는 호랑이와 함께 먼저 바위에게 가서 억울함을 하소연했지만, 오히려 바위는 호랑이의 편을 들어주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평소에 나무꾼들이 바위에 앉아서 자신을 괴롭히기 때문에 같은 동류인 사람을 미워해서 내린 지극히 편파적인 판단이었다. 사람은 엉뚱하게 호랑이 편을 들어준 바위 때문에 또다시 최악의 궁지로 내몰리게 된다.

이때 들은 다시 토끼에게 가서 심판해줄 것을 부탁한다. 그러자 토끼는 그 들을 앞세우고 호랑이가 갇혔던 곳까지 가서 호랑이에게 함정 문을 열어 줄 터이니 다시 함정으로 들어가

23) 『대계』 (6-2권), pp.706-708.

보라고 안심시킨다. ‘현명한 재판관’으로서의 토끼의 역할을 그대로 받아들인 호랑이가 다시 함정으로 들어가자 토끼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함정 문을 닫아서 호랑이를 가둔다.

이러한 토끼의 행동이 가능했던 것은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토끼의 현명한 판단 덕분에 온정을 베풀었으나 오히려 목숨을 잃을 뻔 했던 사람은 다시 살 수 있었고,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했던 뾰뻑한 호랑이는 원래대로 함정에 가두어서 공공의 질서가 회복된 것이다.

탈중심형의 사례로 든 [사례 3]과 [사례 4]에 묘사된 토끼의 행동은 자기중심형에 등장하는 [사례 1]과 [사례 2]에서 극도로 이기적이었던 토끼의 모습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특히 [사례 2]의 토끼는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상대방을 해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것도 단발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상대의 약을 올리면서 불까지 지르게 하여 결국은 온 집안을 다 태우는 식으로 철저하게 파멸시켰다. 이러한 토끼의 행동에는 일말의 양심이나 도덕성은 말할 것도 없고 기본적인 사회성마저 전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탈중심형에 나타나는 토끼 행위의 주된 목적이 억울한 제삼자를 돕기 위해서라는 점은 자기중심형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여기서 토끼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하소연을 차례로 듣고 판단하여 정의를 다시 구현하는 현명한 판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토끼는 양자의 입장을 충분히 숙지하여 억울한 자를 구해주는 기지를 발휘할 뿐만 아니라, 배은망덕한 호랑이를 응징하여 공공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었다. 정리하면 탈중심형에서 토끼는 자신의 안위가 아닌 제삼자의 시선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판사의 입장에서 사회정의를 회복시키는 특징을 나타낸다.

3. 일본 토끼 설화의 유형과 특징

『민담』에 채록된 토끼 설화는 총12화이고 『대성』에서는 총4화가 확인된다. 이 중 에서 단순히 토끼의 특이한 외모의 유래에 대한 이야기 2화²⁴⁾와 토보살(兎菩薩)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 1화²⁵⁾를 제외하면 본 논문에서 분석 대상이 되는 설화는 총13화이다. 이를 유형 별로 분석하면 한국 설화와 마찬가지로 모든 이야기가 트릭스터의 범주에 속하며, 트릭스터의 유형은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자기중심형과 이타적으로 행동하

24) 『민담』: ①<古屋のり>(4권): 토끼의 꼬리가 짧아진 유래. ②<兎と猿とひき蛙>(17권): 토끼의 앞발이 뒷발보다 짧아진 유래.

25) 『민담』: <果報者と阿保者>(17권).

는 탈중심형으로 뚜렷하게 구분된다. 각각의 유형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여 일본 토끼 트릭스터의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2.1. 자기중심형(이기적인 트릭스터)

이 유형은 플롯의 구성에 따라 ‘식욕본능’에 관한 서사구조 총2화,²⁶⁾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를 기만’하는 서사구조 총6화가 확인된다.²⁷⁾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내용은 토끼가 원하는 물건을 손에 넣기 위해 주변 인물들을 철저하게 속이는 것이다. 제9권, <곰과 토끼와 수달(クマとウサギとカワウソ)>의 사례에서 이를 확인하기로 한다.

[사례 5]

옛날에 곰과 토끼와 수달이 살고 있었다. 햇빛이 좋은 봄날에 야스케(八助)는 소금을, 곤자(権左)는 콩을, 야사이몬(弥左衛門)은 돛자리 한 장을 지고 가고 있었다. 그것을 본 토끼가 곰과 수달에게 “우리 저 짐을 뺏어볼까”...(중략)...토끼가 두 동물에게 “사람들이 짐을 내려놓고 쉴 때 나무 위에는 곰이 올라가있고, 물속에는 수달이 숨어 있으렴. 대나무밭에는 내가 숨어 있을게. 세 사람이 잠깐 쉴 때 우리가 한꺼번에 소란을 피우면 모두 짐을 버리고 도망 칠거야.”...(중략)...세 마리가 동시에 소란을 일으키자 세 사람은 놀라서 도망쳤다. 이윽고 세 동물들은 훔친 물건을 어떻게 나눌지 의논했다. 토끼가 “수달아 너는 물고기를 잡으면 소금을 뿌리니까 소금이 좋을 거야. 곰아 너는 잠자는 것을 좋아하니까 돛자리를 가져가렴. 콩은 내가 가질게”...(중략)...수달이 가마니에 든 소금을 등나무로 묶고 물속으로 들어갔더니 소금이 물에 녹아서 눈과 코를 따갑게 했다...(중략)...곰은 돛자리를 나무 위에 얹고 앉자마자 미끄러져서 허리를 심하게 빠었다...(중략)...곰과 수달이 토끼집으로 향했다. 이런 일을 예상한 토끼는 다 먹은 콩 껍질을 얼굴과 눈 주위에 미리 붙이고 우는 척을 하며 “아, 콩을 먹었더니 이렇게 천연두(豆疱瘡)가 생겼어.”라고 말했다.²⁸⁾

[사례 5]에서 토끼는 사람들로부터 물건을 빼앗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처음에 사람들이 물건을 지고 오는 것을 맨 먼저 발견하고 다른 동물들에게 그 물건을 훔치자고 제안했으며, 물건을 훔치는 과정에서도 두 동물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어 분담하게 한다. 토끼가 의도했던 대로 사람들을 따돌리

26) 『민담』: ①<ひきかえるとサル>(16권), ②<猿のけつは赤いな>(17권).

27) 1.『민담』: ①<クマとウサギとカワウソ>(9권), ②<兎と猿とひき蛙>(15권), 2.『대성』: ①<狸と兎と川獺>(福岡県, 1권), ②<狸と兎と川獺>(高知県, 1권), ③<因幡の白兎>(山形県, 1권), ④<因幡の白兎>(福島県, 1권).

28) 『민담』 (제9권), pp.171-173.

고 원하는 물건들을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시종일관 토끼의 치밀한 계획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이 내용은 원하는 물건을 손에 넣으려는 토끼의 계획된 의도와 행동에서 자기중심형 트릭스터 기질이 제대로 발휘되는 부분이다.

토끼의 트릭스터적인 속성은 비단 물건을 훔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훔친 물건을 다른 두 동물들에게 분배하는 과정에서도 여과 없이 드러난다. 토끼는 훔친 물건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콩을 손에 넣기 위해 다른 두 동물들에게는 그들에게 무익한 것들을 은근슬쩍 떠넘긴다. 이 과정에서 토끼는 수달에게는 고기를 잘 잡는다고 칭찬을 했으며, 곰에게는 잠자는 것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부추겼다. 사실 토끼가 이 두 동물들에게 권해준 소금과 돛자리는 결국 그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었지만, 토끼는 감언이설로 이것들을 마치 그들에게 최상의 것처럼 속여서 넘길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내용에서 토끼의 트릭스터적인 진수를 보여주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콩을 먹은 후에 마지막에 두 동물들에게 보여주는 토끼의 행동에 나타난다. 토끼는 두 동물들에게 해가 되는 물건을 주었기 때문에 해코지 당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그래서 토끼는 다 먹은 콩 껍질을 얼굴에 미리 붙여서 자신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콩을 먹고 천연두에 걸리게 되어 괴로움을 당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기를 펼친 것이다. 이에 대한 다른 사례를 제15권,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猿のけつは赤いな)>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사례 6]

옛날에 토끼와 수달과 원숭이 세 마리가 사이좋게 살고 있었다. “곤 오본(盆)이 다가오는데 뭔가 음식이라도 마련하면 좋으련만”...(중략)...아저씨가 장에서 산 돛자리, 콩, 소금을 등에 가득지고 오고 있었다. 성미가 급한 토끼가 풀숲에서 필쩍 뛰어 오르더니 아저씨 눈앞에서 절뚝절뚝거리며 지나갔다...(중략)...남자는 등에 졌던 짐을 내려놓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토끼를 쫓기 시작했다. 하지만 토끼는 산 속으로 달아났다...(중략)...원숭이와 수달이 등짐을 모두 가져가 버렸다...(중략)...토끼가 “원숭이야 나무 끝에서 돛자리를 펴고 자보렴, 극락일 테니까” 원숭이는 얼떨결에 돛자리를 받아들었다. “수달아, 너는 물고기를 잡는데 달인이잖아, 생선을 먹을 때는 소금이 제일이야” 수달 또한 토끼에게 속아서 소금을 집었다. “아 이제 남은 것은 콩뿐이네. 어쩔 수 없이 콩이라도 먹을까”라고 말하며 토끼가 재빨리 콩을 모아서 사라져버렸다. 원숭이가 나무 위에서 돛자리를 펼쳤더니 쿵하고 떨어져서 엉덩이 표피가 벗겨지고 새빨간 피가 나왔다...(중략)...수달이 물고기를 잡아서 소금을 뿌리려고 했더니 소금이 물에 녹아서 하나도 없었다. 토끼는 원숭이와 수달이 오자 얼굴 한쪽

에 콩 껍질을 붙여서 울퉁불퉁 솟아나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토끼는 두 동물들에게 콩을 먹어서 얼굴이 이렇게 됐다고 말하며 풀 싶으로 달아나버렸다.²⁹⁾

[사례 5]와 [사례 6]은 토끼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물건을 빼앗는 공통적인 서사구조로서 자기중심형 트릭스터의 전형적인 내용이다. 두 사례에 나타나는 토끼의 일차적인 트릭스터의 특징은 먼저 사람에게 물건을 빼앗기 위해 다른 두 동물들에게 구체적인 역할 분담을 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른바 사람에게서 물건을 훔치는 일이 처음부터 토끼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윽고 토끼는 훔친 물건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도 곰과 수달에게는 오히려 해가 되는 물건을 감언이설로 떠넘기고 자신이 원하는 콩을 최종적으로 손에 넣는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두 동물들에게 불리한 물건을 준 것에 대한 해코지를 피하기 위해 얼굴에 콩 껍질을 붙여서 마치 천연두에 걸린 것처럼 연기하는 치밀함까지 보인다. 결국 수달과 곰은 토끼의 얼굴에 붙은 콩 껍질을 천연두에 걸린 것이라고 착각하여 토끼에게 복수하는 것을 단념하게 된다.

이처럼 [사례 5]와 [사례 6]에는 토끼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을 세 단계에 걸쳐서 철저하게 기만하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여기에는 자신 외에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나 도덕성은 전혀 보이지 않으며, 이는 전형적인 자기중심형을 대변하는 일본 트릭스터의 특징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한국의 자기중심형에 나타나는 상대에 대한 잔인한 복수나 상대를 파멸로 이끄는 극단적인 행위는 발견되지 않으며, 서사구조도 매우 단조로운 편이다. 일본 자기중심형의 트릭스터 행위는 대체로 이기적이긴 하지만 오히려 묵인해줄 수 있을 정도의 행동이라는 점에서 한국 트릭스터와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 탈중심형(이타적인 트릭스터)

이 유형은 토끼가 할아버지의 억울한 사정을 듣고 그 상대 동물을 응징하는 공통적인 서사구조이며, 총4화가 확인된다.³⁰⁾ 이중에서 제6권, <할머니탕·너구리탕(ばばあ汁・狸汁)>의 내용을 제시하기로 한다.

29) 『민담』 (제15권), pp.69-72.

30) 『민담』 ①<猿とうさぎのかちかち山>(2권), ②<木の船と泥の船>(6권), ③<ばばあ汁・狸汁>(6권), ④<カチカチ山>(18권).

[사례 7]

옛날에 할아버지가 너구리를 잡아와서 할머니에게 너구리 탕을 끓이라고 했다...(중략)...할머니가 탕을 끓이기 위해 방아를 찧자 너구리가 자신을 풀어주면 도와주겠다고 말한다...(중략)...할머니가 할 수 없이 너구리를 풀어주었다. 너구리가 곧바로 할머니를 몽둥이로 때려죽이더니 가죽을 벗겨 뒤집어쓰고 할머니 탕을 끓인 후에 할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중략)...할아버지는 이 사실을 모르고 할머니 탕을 세 번이나 먹었다. 너구리는 할아버지가 식사를 마치자 “할아버지는 바보, 할머니 탕을 세 번이나 먹었다”라고 쓰더니 할머니 가죽을 벗고 산 속으로 도망가 버렸다. 할아버지가 냇을 놓고 울고 있자 토끼가 와서 자초지종을 듣고 자신이 복수를 해주겠다고 말한다...(중략)...토끼와 너구리가 풀을 베어 등에 지고 산길을 내려오다가 토끼가 부싯돌로 탁탁 거리며 너구리 등에 몰래 불을 지피고 도망갔다...(중략)...너구리는 등에 큰 화상을 입었다. 며칠이 지나자 너구리가 또다시 토끼에게 된장을 보고 무엇이냐고 묻는다. 토끼가 화상에 바르는 약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너구리 등에 잔뜩 바르고 도망친다. 이번에는 토끼가 등나무 줄기를 걷고 있을 때 너구리가 또다시 나타나 화상에 좋은 약이 없겠느냐고 묻는다. 토끼는 너구리에게 등나무 줄기로 화상 입은 곳을 두르면 낫는다고 거짓말을 하여 등나무로 빙빙 돌려서 묶은 후에 할아버지에게 끌고 간다. 할아버지는 토끼에게 고맙다고 하며 너구리 탕을 끓여 먹었다.³¹⁾

[사례 7]에 등장하는 토끼의 모든 행동은 할아버지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달리 말하면 토끼가 행동하는 목적은 자신의 안위가 아닌 제삼자인 할아버지를 도와주기 위해서이며, 이는 탈중심형의 공통적인 서사구조이다. 이를 자기중심형에 등장하는 토끼의 행위와 비교해보면 본질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자기중심형에 나타난 토끼의 모든 행동은 전적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했으며, 타인을 위한 배려나 양보와 같은 이타심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탈중심형에 등장하는 토끼의 행위는 궁극적인 목적이 이타적이라는 사실에서 자기중심형과는 차원이 다른 흥미를 제공한다. 이에 대한 또 다른 사례를 제6권, <나무배와 진흙배(木の船と泥の船)>에서 살펴보자.

[사례 8]

옛날에 할아버지가 산으로 나무를 하러간 사이에 할머니가 방아를 찧고 있었다. 이때 너구리가 미요시(三吉)로 변신해서 할머니 대신 방아를 찧어주겠다고 접근하여

31) 『민담』 (제6권), pp.281-287.

방아를 찧는 척하다가 절굿공이로 할머니를 내려쳐서 순식간에 죽이고 말았다…(중략)…너구리는 죽은 할머니를 솥에 넣고 끓인 후에 할머니로 변신해서 할아버지에게 할머니 탕을 내주었다. 할아버지가 탕에서 이상하게 할멈 냄새가 난다고 말하자 너구리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할아버지에게 할머니 탕을 먹었다고 큰 소리로 떠들며 도망갔다. 할 말을 잃은 할아버지가 슬프게 울고 있자 산에서 내려온 토끼가 할아버지로 부터 자초지종을 듣는다. 토끼는 불쌍한 할아버지에게 자신이 반드시 복수해 주겠다고 다짐한다…(중략)…어느 날 토끼가 너구리에게 산으로 풀을 베러 가자고 말한다. 토끼는 자신이 베 풀을 일부러 너구리에게 짊어지게 한 후에 너구리의 등에 불을 지펴서 등에 화상을 입힌다…(중략)…토끼가 이번에는 나무배와 진흙배를 만들어서 너구리에게 낚시를 하러 가자고 말한다. 진흙배를 탄 너구리는 그대로 물속으로 가라앉아서 빠져 죽고 말았다. 토끼는 할아버지의 복수를 대신 해주었다.³²⁾

[사례 8]에 묘사된 토끼의 행동 목적은 [사례 7]과 같이 이타적인 것에 집중되어 있다. 두 사례에 나타난 공통적인 서사구조는 행동의 주체인 토끼의 목적이 타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탈중심형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다. 여기서 토끼는 할아버지에게 너무나 비상식적이며 잔인하게 행동한 동물에게 단계적으로 복수하는 치밀함을 보인다. 제삼자를 대신한 토끼의 복수는 매우 계획적이며 상대동물이 저지른 동일한 방법으로 되갚아주는 일종의 스케다치(助太刀)의 역할을 띠고 있다고 하겠다.

이점은 한국의 탈중심형에서 토끼가 판사의 입장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변명을 충분히 들어준 후에 그에 상응하는 합당한 판단을 내린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난다. 한국의 토끼는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숙지했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자신이 저지른 비사회적인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죄 값을 치르게 하는 유연함과 현명함을 발휘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도 현명한 토끼의 판단대로 따를 뿐 커다란 저항은 없었다.

하지만 일본의 탈중심형에 등장하는 토끼의 행위는 가해자를 벌하는 과정에서 조금의 에누리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를 대신해서 가해자에게 단계적으로 복수를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 최대한의 육체적인 고통을 안기고, 최종적으로는 자신이 저지른 동일한 방법으로 죽음을 맛보이는 철저함이 나타난다. 논의를 정리하면 한일의 탈중심형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트릭스터의 속성은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구해줌으로써 공공의 사회질서를 회복시키는 역

32) 『민담』 (제6권), pp.167-172.

할이다. 하지만 방법 면에 있어서는 한국의 토끼 트릭스터가 현명한 판사의 입장에서 가해자를 처벌하여 무너진 질서를 바로잡는 입장이라면, 일본의 토끼 트릭스터는 스케다치의 역할을 띤 엄격한 검사로서의 특징이 뚜렷이 나타나는 차이점이 발견된다.

4. 맺음말

본 논문은 한일의 토끼 설화에서 자기중심형과 탈중심형에 묘사된 트릭스터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분석하는 것에 논지의 초점을 두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설화에 등장하는 토끼 트릭스터의 보편적인 특징은, 첫째 토끼는 설화의 다른 동물들과 비교할 때 모습이 가장 작고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시작하고 해결하는 중심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둘째 토끼의 트릭스터적인 행위가 처음엔 이기적인 자기중심형에서 출발했으나 점점 이타적인 탈중심형으로 변모해 간다는 것이다. 이점은 한일의 설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한일 토끼 트릭스터의 가장 큰 보편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일 토끼의 트릭스터적인 행위는 각각의 유형에서 매우 다른 특징도 발견된다. 먼저 한국의 자기중심형은 동일한 유형이지만 서사구조의 축이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토끼의 트릭스터적인 행위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상대를 속이는 것과, 여기에서 발전하여 상대에게 잔인한 복수까지 감행하는 것으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주목할 점은 토끼가 자신을 위기에 내몬 상대에게 복수하는 방법이 상대의 아이를 삶아서 먹게 하는 극단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토끼의 트릭스터적인 행동은 단지 자신의 안전을 위한 것에서 시작했으나, 점차 상대를 필요 이상으로 잔인하게 파탄에 이르게 하는 극적인 내용으로 변화되고 있다. 요약하면 한국 탈중심형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에게만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타인을 전혀 배려하지 못하는 사회성의 부재가 매우 뚜렷하다는 것이다.

이점을 일본의 자기중심형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자기중심형은 상대를 파괴하고 살해하는 유희본능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자기중심형에는 토끼가 원하는 물건을 손에 넣기 위해 상대방을 속일 뿐이며 상대의 목숨을 위협하거나 살해하는 등의 극단적인 행동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설화에서처럼 상대에게 철저히 복수하고 파탄에 이르게 하는 잔인한 이야

기는 없으며, 시종일관 자신의 안위만을 위한 트릭스터에 머물고 있는 차이점이 발견된다. 오히려 일본의 트릭스터는 상대를 속이되 그 행동을 어느 정도 묵인해줄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자기중심형에 나타나는 한일 트릭스터의 특징은 트릭스터의 목적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일의 탈중심형에 나타나는 토끼 트릭스터의 공통점은 토끼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타적이라는 사실에서 자기중심형과는 차원이 다르게 변모한 캐릭터의 모습이다. 먼저 한국 탈중심형의 특징은 토끼가 자기중심에서 완전히 벗어나 제삼자의 입장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사회정의의 바로세우는 판사로서의 성격이 뚜렷하다. 이 과정에서 토끼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숙지하고 가해자를 지혜롭게 응징하는 현명한 판사의 모습이라고 하겠다. 이에 비해 일본 탈중심형의 특징은 토끼가 상식의 틀을 무너뜨린 동물에 대한 처벌을 매우 계획적으로 실행하는 엄격한 검사로서의 역할이 강하다. 상대 동물이 저지른 동일한 방법으로 마지막까지 복수를 해주는 치밀함이 특징적이며, 단순히 벌을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보복을 하는 스케다치의 성격을 띤 검사로서의 성격이라고 하겠다.

논의를 정리하면 한일의 탈중심형에 나타나는 트릭스터의 공통점은 토끼가 심판자로서 가해 동물을 철저히 응징하고 피해자를 구해주어 무너진 사회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이는 사회정의를 구현시키는 새로운 창조자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한국의 토끼 트릭스터는 현명한 판사의 역할에 충실했으며, 일본의 토끼 트릭스터는 스케다치의 역할 띤 검사의 역할이 뚜렷하다는 특징을 도출할 수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한일의 설화에서 공통적으로 토끼가 사람을 속여서 자신대신 아기나 할머니를 탕으로 끓이게 한 후, 할아버지에게 그 탕을 먹게 하는 잔인한 내용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이 한국은 자기중심형이고 일본은 탈중심형으로 구분되지만, 사람이 토끼에게 속아서 탕으로 만들어지고 또 다른 사람이 그 탕을 먹는다는 서사구조는 동일하다. 이처럼 비상식적이며 잔인한 이야기가 한일에서 동시에 전승되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한일 토끼 트릭스터 설화의 전과경로를 탐색하는 연구가 차후에 진행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와 더불어 본 논문에서 접근하지 못한 토끼 트릭스터 설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한일의 비교분석은 차후의 과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기호(2008) 『<토끼 설화>의 역설(逆說)적 경험』 民族文化論叢(第38輯),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 김택규(1986) 「동해문화권 탐방기 -일본열도 동해연안의 신화와 제의의 현장-」 『신라 문화계 학술발표논문집』 7,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p.314.
- 나수호(2003) 「트릭스터 연구의 현황과 과제」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한국구비문학회, pp.1-9.
- 魯成煥(2003) 「稻羽の白兎」 説話と韓国・梧桐島の伝説, 古事記年報(46), pp.53-57.
- 노성환(2010) 『오동도 토끼 설화의 세계성』, 민속원, pp.77-122.
- 송영숙(2015) 「일본 설화 속의 토끼담 연구」, 韓國日語日文學會, pp.381-399.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1984) 『한국구비문학대계』(총82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뻘아제, 베르벨·이넬데, 김재은 역(1981) 『아동심리학』,
교육과학사.
- 石上善応(1996) 「仏典の説話伝承について : とくに月兎説を中心に」, 仏教文学の多様性 I : インド
仏教の文学性, 大正大学研究論叢 4, pp.77-94.
- 大久間喜一郎(1995) 『古事記の比較説話学』, 雄山閣, p.92.
- 大林太良(1995) 『北の神神, 南の英雄』, 小学館, p.82.
- 門田真知子 編 『比較神話から読み解く因幡の白兎神話の迷』, 今井出判, pp.213-214.
- 倉野憲司(1976) 『古事記全註釋』 3, 三省堂, p.200.
- 小島桜礼(2008) 「文献 解題と本文. 現代語訳」, 門田真知子 編, 『比較神話から読み解く因幡の白
兎神話の迷』, 今井出判, pp.213-214.
- 小林信彦(2003) 「ブッダが兎であった時の話:中国語ヴァージョンに見られる仏教説話の複雑な展開」,
桃山学院大学人間科学 25, pp.77-100.
- 糊胡厚生(2000) 「すすきの穂と兎」, 『アジア遊学』19, 勉誠出版, pp.163-164.
- 関敬吾(1987) 『日本昔話大成』, 角川書店.
- 中西進(1985) 『天つ神の世界 -古事記をよむ-』, 角川書店, pp.229-230.
- 野津龍(1985) 「因幡の白兎伝説の誕生」, 『鳥取大学教育学部研究報告 人文社会科学』 36-2, 鳥
取大学教育 学部研, p.99.
- 福島秋穂(1988) 「稻羽の素兎譚について」, 『記紀神話伝説の研究』, 大興出版, pp.382-383.
- 松村一男(1991) 「大国主伝説と出雲神話」, 『海と列島文化』 2- 日本海と出雲世界, 小学館, p.204.
- 未来社 編(1976) 『日本の民話』(全26券), 未来社.

논문 투고 일자 : 2016.03.31.
논문 심사 일자 : 2016.04.18.
게재 확정 일자 : 2016.04.28.

 <要旨>

韓国と日本のウサギ説話の比較研究

-トリックスターの類型を中心として-

宋英淑

韓日のウサギ説話に共通的に現れる類型は<トリックスター>の類型である。本稿では、<トリックスター>の類型を、児童発達論の特徴に基づいて、一次的な「自己中心型」と二次的な「脱中心型」で分けることとする。韓国の説話の「自己中心型」は叙事構造がバラエティーに富み、最初、トリックスターの行為の目的はただ自分の命を守るためだったが、だんだん相手にあだ討ちをするように変化した。このような「自己中心型」の特徴には他人を全然気にしないという社会性の不在があげられる。これに比べると日本の説話における自己中心型の叙事構造は単純であり、トリックスターの行為の目的は他人から財物を奪われることに集中する。

韓国の説話の「脱中心型」の特徴は、ウサギの行為の目的が自分の立場ではなく他人のために善悪を判断して社会の正義を正す審判官の役割である。また日本の説話の「脱中心型」の特徴はウサギが審判官として過ちを犯した動物に徹底的に懲罰を加える点にある。このように韓日説話の脱中心型の共通点は、ウサギのトリックスターの行為の目的が他人のために善悪を判断して社会の正義を正す審判官の役割にあるということである。これは崩れた社会秩序を直す創造者としてのトリックスターであり、韓日のウサギ説話の「脱中心型」に現れる共通点である。

A Study on the Comparative Study of Korean and Japanese Rabbit Tales

-Focused on the type of Trickster-

Song, Young-Sook

A common type of character show in Korean and Japanese rabbit tales is the <Trickster> type. It can be divided into two types: the <Self-centered type>, and the <Decentralized type>. Korean <Self-centered type> has a variety of narrative structures. The rabbit's Trickster behavior deceived its opponent in order to save its own life at first, but the content was changed into bloody vengeance on the opponent later. In comparison, the narrative structure of the Japanese <Self-centered> type seems to be very simple, and the sole purpose of the rabbit's behavior is to be focused on thoroughly deceiving their opponent to take what it wants.

As f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Decentralized type>, the rabbit plays a role in a judge who embodies social justice by telling good from bad from the third party's eyes. On the contrary, the characteristics of the Japanese <Decentralized type> have shown that the rabbit was good at the punishment of animals which methodically broke down the framework of common sense as a judge. The things that Korea and Japan have in common are that the rabbit punishes the wrongdoing animal thoroughly as a judge. It shows the aspect of a new creator which realizes a society of justice.